

지역 소식통

‘부안 유치원 한울미당’

성황리 개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은 지난 18일 오전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유아와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부안 유치원 한울미당을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울미당은 부안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 즐기는 연합 축제로 꾸며졌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올해 전체 유치원이 모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릉부릉 교통놀이 △에어바운스 신체놀이 △양궁·에어하키 스포츠놀이 △감각 발달을 돕는 샌드놀이 등 총 7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부안교육지원청은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립 유치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연합놀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가축 폐사 예방

냉방 장비 보급 마무리

정읍시가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축산농가에 환풍기와 냉방장비 보급을 마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고온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을 저하를 방지하고자 폭염 대응 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더위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사업을 끝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품목은 축사 환풍기, 차광막, 냉방 장비 등이다.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시는 냉방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 등 여름철 가축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안내장과 홍보 전단지 등을 농가에 나눠주며 피해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중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글램핑 개장

19일 정식 운영 돌입... 9동 규모로 새단장·캠핑장 주변 먹거리·즐길 거리 가득

고창군이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을 19일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삼원면 두어1길 55-25)은 2018년 준공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해 8월 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군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군은 기존 민간위탁자가 설치·운영하던 글램핑 시설을 매입하고, 안전 점검과 시설 정비를 마치고 올여름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글램핑 시설은 총 9동 규모다. 이용 요금은 여름 성수기(7~8월) 기준으로 주말 15만5000원, 평일 14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약을 원하는 이용객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캠핑장 주변에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와



바지락 등을 현지서 신선하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인근에 갯벌체험학습장과 ‘탑사르갯벌센터’가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과 생태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글램핑장 개장과 연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갯벌SEA네마’를 매주 토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선보인다. 탁 트인 고창갯벌을 무대로 한 야외 영화상영은 올여름 캠핑

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글램핑시설 개장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고창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올여름 휴가는 아름다운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맛있는 고창의 대표 수산물도 즐기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귀농인 영농 창업·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

정읍시, 최대 3억원 영농 창업 자금·7500만원 주택 구입 자금 연 2% 융자... 내달 9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최대 3억원의 영농 창업 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책정됐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금융 기관의 신용,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재촌 비농업인’이나, 현재 도시에 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공통으로 농업이나 귀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농촌 거주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을 제외한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뒤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끝으로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제371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9대 의정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재미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특히 4년간 총 42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2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연평균 160여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신했다.

또한 새민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한빛원전 수명연장 및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의정을 적극 실현했다.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재해 위험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가 군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에서는 지난 1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몽골 무릉현을 방문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안군-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전 절차·선발 방법 협의

부안군에서는 지난 1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몽골 무릉현을 방문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현재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역형 계절근로 사업은 관내 농촌인력중개센터 중 3개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및 선발 방법

을 협의하기 위해 몽골 측은 사전에 범죄 이력이 없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경험이 많고 마약 등 약물 중독이 없는 근로자들을 1차 선발 후 현지 면접을 통해 군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몽골 무릉현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총 140여명 참가... 개인전·혼성 단체전 진행

고창군에서 관내 장애인 스포츠 가족들의 대축제인 2026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활기찬 열기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창군장애인포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8일 고창 스포츠타운 내 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영식 부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진식 고창군장애인포럼회장, 박현규 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한 군의원, 관내 여러 기관 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에는 관내 파크골프 동호인과

장애인 선수단, 경기 진행 요원 등 1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과 화합의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개인전과 혼성 4인조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가한 선수들은 매 홀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며 승패를 떠나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